

불자 세상보기



이병인 부산대 바이오환경 에너지학과 교수

지난 20여 년간 100여 건에 이르는 크고 작은 사찰환경문제가 발생해 왔다. 그 과정에서 개발사찰지원 그리고 불교계차원에서 지역 및 중앙의 시민환경단체들과 연대해 사찰환경과 지역환경을 온전하게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해 왔다. 안타깝게도 타고 남은 불씨에 다시 불이 붙듯이 최근 봉암사 등 몇몇 사찰에서 사찰주위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개발사업들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

깊고 깊은 산중 사찰인 봉암사로부터 서울 도심 중심부에 위치한 봉은사 주변 고층 건물 건립에 이르기까지 산중과 도심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사찰들이 도처에서 개발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

봉암사(鳳巖寺)는 한국불교의 상징적인 선방사찰로 1980년대 이후 산문폐쇄를 통해 선수행의 전통을 확립하고, 자연환경을 보존시킨 대표적인 사찰이다. 백두대간의 상징적인 중심축에 위치해 한국불교의 수

행전통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연생태계 근간으로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그러나 2000년을 전후해 문경완장 스키리조트 건설사업이 추진되는 등 문제가 많았던 곳이기도 하다.

그 당시 관련 지자체와 주지사님, 종단의 관련전문가들이 모여 봉암사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사찰의 수행환경보존을 위한 적절한 완충지역의 확보 및 개발적인 보전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봉암사는 2002년 1월 백두대간과 희귀식물자생지를 보호하고 무분별한 개발과 훼손을 막기 위해 사유지였던 대부분의 사찰림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대부분의 보호지역들이 정부와 전문가들의 요구에 의해 지정되지만, 봉암사 지역의 경우에는 수행환경보존과 자연환경보존을 위한 사찰 측의 자발적인 요청에 의한 보호지역 지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행정을 총괄하는 주무부서인 산림청은 이와 같은 중요성과 가치를 전혀 무시한 채, 봉암사 인근지역의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를 내 주었다.

이같은 사실은 산림청의 존재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의식 없는 탁상행정일 수

밖에 없다. 사찰이 앞장서서 스스로 산을 지키고 보존해 나가겠다는 데에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개발을 촉진시키는 일을 정부부서가 앞장서서 조장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우선은 결자해지라고 산림청은 광산허가를 철회하고, 봉암사지역을 봉암사지역답게 지켜가려는 제반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보존위주로 지켜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서울 강남의 중심사찰인 봉은사(奉恩寺)의 경우에도 참 갑갑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전통사찰 봉은사의 사찰환경보존 및 경관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완충지역으로서 종교제한 등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도 없이 다시 무제한의 개발관행이 반복되고 있다. 종교적 성지로서 뿐만 아니라, 수도 서울의 마지막 보루인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이 마구잡이식의 무분별한 개발이 한 번도 아니고,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다.

이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왜 계속되고 있는가에 대해 근원적으로 점검해 보고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때라고 판단된다. 사찰환경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사찰환경문제를 이 계속되는 일차적인 원인은 사찰을 포함

한 불교계 내부의 의식과 의지의 문제이고, 사찰환경을 삼세의 유산자원으로 온전하게 지켜가야 한다는 불교계 내부의 관심과 노력이 부족한 측면도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목전의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개발관행과 정책당국의 무관심과 의식부재 그리고 묵인과 무시 등이 그 원인이 될 수가 있다.

이제는 사찰환경보존을 위한 명확한 의식을 갖고, 사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찰환경의 보존문제가 이제는 내 것을 지키고자 하는 불교계와 사찰만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삼세(三世)의 유산자원(遺產資源)을 지켜가야 하는 소중한 일임을 정부와 전문가그룹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지속적인 보존과 관리를 담당하게 알리고 요구해야 한다. 특히 불교가 이익단체로 오인되는 걸 피하고자 한다면 불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바탕으로 사회적 공익과 복지를 위한 실천적 활동에 앞장서야 한다.

또한 한국불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인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삼세의 유산자원으로 고이 지켜가겠다는 불교계의 의식전환과 지속적인 실천 활동이 선행돼야 한다. 사찰환경을 과거로부터 온전하게 물려받았듯이 말이다.

社說

자성·쇄신은 중앙총회부터

조계종이 추진하는 자성과 쇄신 5대 결사에 불자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다. 사정이 이러하자 총무원의 움직임이 더욱 더 분주해졌다. 11월 7일 문경 봉암사에서 종단 원로·중진스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결사추진본부 자문위원회의를 열었다. 자리에서 스님들은 모임을 정례화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실천수법으로 결의했다고 한다. 다행스럽게도 선원 수좌스님 등 많은 스님들이 결사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보태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조계종 집행부에 대한 종단 구성원의 불신이 그것이다. 불신은 집행부의 무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퇴후 스님 등 재야에서 지적되는 측근 중심의 인사와 계파 나눠먹기가 그 원인이다.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중앙총회가 무력화됐다는 지적 또한 틀릴 수 없다.

당장 제188회 정기총회에서 총무원 예산안 심의를 두고 단 한건의 질의를 끝으로 만장일치 통과된 것은 무엇이냐라 설령할 텐가. 국민으로부터 비난·조롱 받는 국회도 나랏돈의 쓰임새를 정하는 예산안 심의만큼은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 엄청난 데 달린 격으로 총책질의 문제 삼아 총회위원을 폭행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그런데도 총회 의원스님들은 해당위원의 일장기간 총회 출석 제한이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

불자들이 조계종에 거는 희망은 크다. 부디 스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실천수법해 본분사(本分事)를 지키기를 바라라지 않는다.

포교에 필요한 것은 종책이다

조계종 포교원이 〈포교총람〉을 펴냈다. 책에는 근대기부터 제5대 포교원장 해충 스님에 이르기까지 종단 포교의 흐름과 현황, 각종 자료를 정리해 놓았다. 책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포교원의 역대 원장스님들의 포교 지향과 중점과제, 사업 등을 각 시대별로 서술해 놓은 포교원사이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포교원이 '신도단체 재등속 사업'을 통해 '대한불교조계종 000'으로 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정체성 확립과 포교역량 결집이라는 사업 명분은 차치해도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조계종이 주축·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회장 등 단체장 임명권도 당연연 총체인 조계종 포교원장이 갖는 부작용(?)은 무엇으로 해명할 텐가. 포교 현장에서 땀 흘려 봉사해 온 이들로서는 식은 땀 흘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교총람〉 발간이 그리 답답지 않은 것은 정작 필요한 종책 마련은 차치하고 치적 정리에 우선했기 때문이다. 과거를 온전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미래를 치밀하게 계획할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포교현장에서는 자비심만으로 신심의 고통을 감내하는 이들이 많다. 그런 이들이 원하는 것은 〈포교총람〉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은가.

〈포교총람〉을 보면 조계종 포교원은 그동안 많은 일을 했다. 이왕 퍼낸 것 없는 것보다 낫다고 치자.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업적이 '신도단체 재등속 사업'의 실패로 인해 그나마도 "왕년에는~"이란 수식어가 붙을 수 있다는 점이다.

사부대중 칼럼



김동수 시인·백제예술대학 교수

며칠 전이었다. 책을 읽다가 하도 마음에 와 닿는 문구가 있어 이를 필자가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 "컵에 담긴 물은 소금 한 숟갈을 넣으면 짠맛이 납니다. 그러나 그 소금을 호수에 넣는다고 물맛이 짜게 변하진 않습니다. 그냥 호수 그대로지요. 당신의 마음이 하늘처럼 넓고 바다같이 광활할 때 평화는 흔들릴 수 없습니다" 라는 구절이었다.

그랬더니 누군가 바로 댓글을 달았다. "들맹이를 던진들 꿈쩍할까요? 그릇이 바다와 같을진대... 하지만 제 마음은 컵에 담긴 물이랍니다. 오늘도 찰랑찰랑 흔들리고 있습니다"라고. 울은 말이다. 누구인들 흔들리지 않는 삶이 어디 있느냐.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수행을 많이 한

성직자나 고승이라 할지라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흔들리고 부대끼며 번뇌·망상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게 범부들의 삶이 아닐까 한다.

그래서인지 시인 도중환도 '흔들리며 피는 꽃'에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문제는 한 송이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흔들리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효범 스님은 그것을 '물동이 속의 바가지'에 비유한 바 있다.

어린 시절 우리의 어머니나 누나들이 우물에서 물동이에 물을 길어 머리에 이고 올 때, 물동이 속의 물이 출렁거리 이마에 쏟아지곤 하였다. 그럴 때마다 물동이 속에 바가지를 하나 얹어놓아 물의 흔들림을 바로 잡았던 기억이 있다. 바가지가 출렁이는 물의 구심점이 되어 흔들림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었다.

몇 년 전으로 기억이 된다. 태풍이 일본 열도를 몰아칠 때, 일본에서는 새로운 건

축법이 소개되어 뉴스를 장식한 일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흔들리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건축법이었다. 일본은 지진으로 해마다 인명과 재산 피해가 많아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을 수 있을까?' 이 것이 언제나 그들의 큰 관심사였다.

처음에는 철근 콘크리트 내진벽으로 건물을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고정 하중법'을 썼다고 한다. 그래도 손실을 줄일 수가 없어 그 뒤에 나온 것이 '적재 하중법'이다. 그것은 건축물 안에 있는 사람이나, 각종 물건의 무게를 잘 받쳐주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등장한 건축법이 이른 바 흔들리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이동 하중법'이란 것이다.

이는 건축물에 가해지는 각종 외부의 충격을 흔들림 속에서도 스스로 흡수해 건축물을 끝까지 잘 견디게 하는 건축법이다. 흔들리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것이 바로 '물동이 속의 바가지 공법'인 셈이다.

정중동(靜中動)이 아니라 나긋나긋 흔들려 곧 무너지지 않으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동중정(動中靜)의 삶의 방식인 것이다.

불가(佛家)에서도 이와 같은 동중정(動中靜)의 삶의 방식이 있다. 외부의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아, 명경지수와 같이 맑은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평상심(平常心)이 그것이다. 평상심의 평(平)은 나와 나, 주(主)와 객(客)의 차별이 없는 공간적 평등이요, 상(常)은 고금(古今)과 유무(有無)의 변환에도 흔들리지 않는 시간적 평등의 경지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흔들림에도 물들지 않아 고요하고 맑은 마음의 상태가 유지될 때 비로소 평상심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어제도 오늘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평등하고, 밝음과 어둠도 결국 마음 하나에서 비롯된 일시적 과정일 뿐이라는 인식이 그것이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마음의 흐름과 근원을 깨달아 아상(我相)을 비우고 감각에서 벗어나 마음의 중심을 잡는다면, 그게 바로 흔들리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수처자주(隨處作主)의 자기 주도적 삶이요,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한다.

흔들리지 않는 삶이 있으랴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 (02)2004-8200 / 팩스 (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외사출 현물닷컴 실시간 뉴스 현물뉴스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불교포탈 부디피아 소평을 현물닷컴 www.buddhapia.com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사 : (054)634-3429
전북지사 : (063)910-8977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천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관리규정 및 그 실현 요강을 준수한다

어떠한 법당에도 웅장하고, 깨끗한 소리를 보장 해 주는 고급 음향설비 SYSTEM...

YK-308 씨리즈 (10평 ~ 50평 법당용)
가격 : ₩ 2,470,000원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12월 31일까지 YK-308 씨리즈를 설치하는 사찰에는 무선 마이크를 무료 보시 합니다!!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POWERED MIXER 앰프 PM-805 스테레오 앰프 300AN • 고품질 무선마이크

DX-707 스탠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 DX-707 스탠드 마이크 • 법당전용 스피커 • 일반 마이크 V-606LC • 고성능 탁상마이크

◆특징: 어떠한 앰프로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특징: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 500,000원

◆특징: 65,000원 (택배비 포함) ◇가격 : 135,000원(일반형) ◇가격 : 175,000원(고급형)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 설치비 포함 : 2,470,000원 ※ 외부 고급 스피커 추가 설치시 1개당 150,000원 추가됩니다.